

산업현황 브리핑

생리 없는 삶, 선택할 수 있다면?

지난해 8월, 가슴기 살균제 논란을 시작으로 치약, 햄버거, 용가리과자, 간암 소세지에 이어 국내 언론은 <위생용품 발암물질 논란>에 대해 연일 보도되어 소비자의 불신은 일파만파 번져갔다.



<출처 : 구글이미지(생리컵과 탐폰)>

여성위생용품 중 특정 브랜드 제품의 생리대를 사용하고 생리혈색의 변화, 질염, 복통 및 응급실 갈 정도의 통증 등의 부작용의 목소리는 생리대의 유해화학물질이 잠재적인 건강 위험요인이라는 사회적 관심으로 최고조에 달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였다.

불안한 소비자는 생리컵, 면생리대, 친환경(유기농)생리대를 대안품으로 소비시장이 움직이고 있지만, 이 또한 프랑스 감염학자이자 의사인 장 마르코 보보박사의 유해물질검사 결

과에 따르면, '안전한 수준의 극미량 검출되었으나, 한 여성이 평생 40년간 생리를 한다고 가정할 때 크고 작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'는 단언에 우리는 안심할 수는 없다.

일각에서는 생리용품을 선택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생리 자체를 선택한다는 인식이 생겨 피임, 결혼, 출산처럼 생리도 여성 스스로 선택권을 갖고 호르몬 루프 등 피임기구를 삽입하는 여성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.

나 또한 선택의 여지없이 숙명처럼 받아들였던 25년 이상 매달 겪은 몸의 통증을 스스로 나의 몸에 어떤 것들이 더 좋을지 관심을 갖고 새로운 방식을 두려움 없이 시도하지 않았다.

너무나 활동성과 편리함에 쉽게 일회용 생리대를 선택하고 있었던 것을 반성하며 향후 까다로운 소비자로 더 질 좋은 제품을 요구하고 불편함을 호소하며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바란다.

<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 메디컬소재기획팀 박신정 과장>